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세대에 민족복음을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마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오태희 편집국장: 조선근

안수집사·권사 선출기로

1월 17일, 4부예배후 공동의회에서
오늘, 후보자 발표, 기도로 준비하며 선택해야

교회는 1월 17일 제8대 안수집사 30명과 제 36대 권사 50명을 선출기로 결정했다. 교인의 증가와 각 업무의 세분화, 전문화 등으로 각 일을 담당할 일꾼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지난 주일(1월3일) 4부예배후 공동의회를 열어 선거를 위해 일 정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을 당회에 일임하기로 결정했고, 당회는 이 결정에 따라 지난 1월6일(수) 임시당회를 열어 안수집사 후보자 30명과 권사 후보자 70명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온 교우들은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일꾼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여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1월 17일 선거에는 등록세례교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안수집사는 유효투표수의 삼분의 이로, 권사는 종다수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선출된 안수집사 피택자와 권사 피택자들은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특별교육을 받은 후 당회에서 행하는 고사와 면접을 거친후 4월27일에 장립식 및 취임식을 갖게 된다. 후보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34면 참조)

신년도 직분자 단기 수련회

13, 14일 이틀간 교회당에서

신년도 직분자 단기수련회가 13, 14일 양 일간 오후 6시 40분부터 10시까지 교회당에서 열린다.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맡은바 일에 충실하고 충성하기와 해 매년 열리는 단기 수련회는 기간중 첫 시간(오후 6:40~8:40)에는 예배로 드려지고 둘째 시간에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1993년도 목회방향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새해의 목회방향을, 둘째날에는 각 직분별로 강의를 들으며 자기의 직분에 관한 이해와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날 예배의 설교는 김홍도 목사(아시아연합 신학원 목회학박사, 현 금란교회 담임목사)가, 둘째날은 나경일 목사(폴리신학교 목회학박사, 현 주안장로교회 담임목사)가 하게 되며, 둘째날 각 직분별 강의 제목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교역자 :
제도자의 자세와 협력사역(박종순 목사)

- 장로 : 장로의 정치와 역할(한석지 목사)
- 안수집사 : 안수집사의 역할과 자세(신표근 목사)
- 권사 : 구역에서의 권사의 역할(윤용규 목사)
- 교사 : 교회학교 교육방향과 교사의 역할(홍창민 목사)
- 찬양대 : 찬양대원의 찬양과 영성(김진근 목사)
- 교구일꾼 : 93년도 교구의 운영방향(김성윤 목사)
- 전도회 : 전도회의 운영과 활동(임성환 목사)
- 직원 : 직원의 역할과 자세(성봉환 목사)

경로 심방 실시

교회는 1993년 새해를 맞으며 각 가정의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 심방을 각 교구별로 실시한다.

경로심방은 매년 새해를 맞으며 75세 이상의 교회의 어른들을 대접하고 공경하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연초에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 75세 이상 경로 심방 대상자는 500여명 된다.

구역공과-총회발행공과로

교회는 그동안 부목사들이 집권해서 사용하던 구역예배용 공과를 올해부터는 총회에서 발행한 구역공과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 총회 발행용 구역공과는 주세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학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 2학기는 가정에서 복받는 생활, 3학기는 죄악을 이기는 생활, 4학기는 감사하는 교회생활로 구성되어 있다.



카메라 조명 신년하례식이 지난 1일 신년예배를 마친후 신교관 지하 만나홀에서 있었다. 김창인 원로목사, 원로장로, 당회장목사, 사무장로, 남녀교역자, 안수집사 부부들과 권사의 임원들이 다함께 모여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부흥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한해를 보낼 것을 다짐하고서로 격려하며 새해인사를 나누었다. (사진/이승철 집사)

회계 실무자교육

감사위원회는 각 부서 회계담당 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1,2차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이 교육은 회계담당자의 자세 및 기본적인 업무를 교육할 예정인데 각 부서 회계담당자는 필히 참석하여 회계업무에 관한 바른 이해와 교회내의 통일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제1차는 1993년 1월 15일(금) 오후 6시 배다니홀에서 실시하고 제2차는 1차교육 매달자를 대상으로 1월 17일(주일) 오후 3시30분에 실시한다. 강사는 윤성철 장로.

평신도선교사 파송예배

당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평신도선교사 파송예배를 갖기로 했다. 평신도선교사로는 뉴질랜드로 이민가는 김형선 집사와 호주로 이민가는 이기성 집사이다. 두 사람은 충헌 선교연구원 제1기 수료생으로 평신도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꾸준히 모색해던중 이번에 이민을 가면서 평신도선교사로 파송 받게 된 것이다.

김형선 집사의 가족으로는 부인 한영자 집사와 1남1녀가 있고 이기성 집사의 가족으로는 부인 박정애 집사와 사마에 2남1녀를 두고 있다.

원로목사, 당회장 동정

1. 김창인 원로목사
 - 1월 1일/인천 순복음교회 신년예배
 - 1월 4일/세계성신클럽 조찬기도회
 - 1월 5일/1993년 예정총회 사무예배
2. 당회장 신성종 목사
 - 1월 4일/극동방송 사무예배 설교

주보가 바뀝니다

1993년부터 주보의 면수 조정이 됩니다. 1면에는 주일 예배 순서를, 2면에는 영이예배순서, 찬양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오늘날 찬양을 실게 됩니다. 이는 1993년도 목회지침에 나타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이게도 하며, 보다 예배를 위해 애고 예배 시간에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케 하기 위한 의도도 있습니다.

한편 주보편집, 제작의 정확성을 위해 주보원고 마감일을 매주 수요일 저녁 예배후까지로 합니다. 각 부서와 성도들의 주보를 통한 광고는 반드시 사무국에나 출판부에 비치된 '주보게재 요청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

열두 제자의 파송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마10:1~15)



1. 서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헌법, 즉 팔복에 관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는 일곱 가지 기적이 나오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후에 열두 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보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첫번째 선교사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을 보내주셨으며, 그 열두 제자들은 그 후에 수많은 종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세 단계 사역

하나님께서 세 단계로 사역을 하십니다. 첫째는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마10:1). 둘째는 권능을 주십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마10:1).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마10:5).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세 단계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직분에 맞게 부르시고, 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나 권능을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신 다음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심은 다음에는 거두어 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 다음에 남은 것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추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열두명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대표되는 지파가 열두 지파이기 때문에 신약의 대표도 열두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 3은 하늘의 숫자이고 4는 땅의 숫자인데 이것을 곱하면 열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선택수입니다.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권능을 주셨는데 첫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신 다음에는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권능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에 이러한 권능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의 명령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10:5, 6). 이는 먼저 악을 절령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십자가 정병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말씀은 세상을 저들에게서 빼앗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자유롭게 만

질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구절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육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제자들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들에게 세계 선교를 하라고 하면 다 주저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제한적인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3단계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뱉은 말입니다. 말은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두번째는 쓴 화살입니다.
세번째는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기회는 바로 활용해야 합니다.

들어 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힘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라는 말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만들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소위 열두 사도는 못되지만 우리들도 제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첫째로 복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

한 복음서이므로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선교하라고 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방 선교를 원치 않아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4. 사명의 내용

“별론 지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10:8). 첫째는 고치라고 했습니다. 두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라고 했고 세번째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바로 문둥이입니다. 네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귀신들이 우리들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쫓아내야 합니다.

이는 모두 예수님이 복음과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눅11:20)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죽은 뒤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임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일곱 가지의 중요한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난 것입니다. 즉 이미 메시아 왕국이 임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여러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월과 함께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권능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바당함이니라”(마10:9, 10) 이 말씀은 최소한의 장비만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최소한의 준비, 복음 전파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으니 내게 권능을 주셨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서 행하면 결국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만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하고 건강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더 좋은 유숙을 위해 이집 저집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마10:11). 주어진 조건으로 만족해야 좋은 것만 자꾸 취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마10:14) 이것은 의식적 부정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에 대해 많이 말합니다. 그들은 부정을 없애는 방법으로 발의 먼지를 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참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5.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3단계 사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뱉은 말입니다. 말은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두번째는 쓴 화살입니다. 세번째는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기회는 바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민족 복음화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8대 안수집사 후보 명단



성명	강철형
나이	47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고등부 협력구역장

번호 1



성명	고승균
나이	4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중등3부

번호 2



성명	고종복
나이	48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장년부

번호 3



성명	권영학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장년1부

번호 4



성명	김기철
나이	46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번호 5



성명	김승곤
나이	4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번호 6



성명	김시주
나이	4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중등1부 협력구역장

번호 7



성명	김인원
나이	4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장년2부

번호 8



성명	김창호
나이	4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번호 9



성명	마도원
나이	59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회계 바울1지회장

번호 10



성명	문광석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협력구역장

번호 11



성명	박동엽
나이	4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초등4부 협력구역장

번호 12



성명	박성명
나이	4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실로암찬양대

번호 13



성명	박정태
나이	5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장년2부

번호 14



성명	박철구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세례부

번호 15



성명	신재성
나이	4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고등부 협력구역장

번호 16



성명	안석현
나이	4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대학부

번호 17



성명	이만기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장년3부 협력구역장

번호 18



성명	이석영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장년2부

번호 19



성명	이실호
나이	4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초등3부

번호 20



성명	이영일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장년2부

번호 21



성명	이태식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소망부 교구간사

번호 22



성명	임창식
나이	4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가브리엘찬양대 협력구역장

번호 23



성명	장철환
나이	4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청년3부

번호 24



성명	전용해
나이	59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예배위원 교구간사

번호 25



성명	정태두
나이	48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청년3부 협력구역장

번호 26



성명	조규호
나이	58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아멘찬양대

번호 27



성명	최정남
나이	46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사랑부

번호 28



성명	홍시오
나이	5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회계부

번호 29



성명	황현철
나이	4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장년2부

번호 30

제36대 권사 후보 명단



성명 **라영실**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소망부
실로암찬양대

번호 1



성명 **곽영자**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호산나찬양대
새가족부

번호 2



성명 **홍명순**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가브리엘찬양대
구역장

번호 3



성명 **남정애**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청년2부
영어교육부

번호 4



성명 **최상선**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탁아부
구역장

번호 5



성명 **박효지**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새가정부
구역장

번호 6



성명 **김영자**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구역장

번호 7



성명 **이명자**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장년2부
실로암찬양대

번호 8



성명 **박정순**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가브리엘찬양대
구역장

번호 9



성명 **이경현**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구역권찰
루디아회장

번호 10



성명 **최정희**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에스더회장

번호 11



성명 **최선자**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구역장
에스더1지회장

번호 12



성명 **심효숙**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소망부
구역장

번호 13



성명 **정운순**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소망부
호산나찬양대

번호 14



성명 **조금자**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장년3부
구역장

번호 15



성명 **허혜균**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구역장

번호 16



성명 **황종임**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장년2부
에스더전도회

번호 17



성명 **김정순**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루디아전도회부회장
구역장

번호 18



성명 **한영덕**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탁아부
교구간사

번호 19



성명 **김경순**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장년2부
구역장

번호 20



성명 **김순오**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구역장

번호 21



성명 **김순배**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사랑부
구역장

번호 22



성명 **한수미**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가브리엘찬양대
구역장

번호 23



성명 **이현숙**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아멘찬양대
호산나찬양대

번호 24



성명 **최영자**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루디아부회장

번호 25



성명 **김남석**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구역장

번호 26



성명 **김숙기**
나이 57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소망부
구역장

번호 27



성명 **나봉녀**
나이 57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구역장

번호 28



성명 **신소자**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장년2부
구역장

번호 29



성명 **윤옥중**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탁아부
구역장

번호 30



성명 **윤희순**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구역장

번호 31



성명 **이현자**
나이 64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한나전도회

번호 32



성명 **김소선**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장년부
구역장

번호 33



성명 **김호녀**
나이 59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탁아부
구역장

번호 34



성명 **박신춘**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탁아부

번호 35



성명 **양명희**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부서 탁아부

번호 36



성명	윤화숙
나이	6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37



성명	이정자
나이	5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사랑부 구역장

번호 38



성명	김복례
나이	6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39



성명	김양자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교구간사

번호 40



성명	김은영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초등6부 구역장

번호 41



성명	김종열
나이	57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루디아전도회

번호 42



성명	김춘자
나이	5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43



성명	박갑연
나이	5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권찰 에스더전도회

번호 44



성명	은필례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45



성명	임영숙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에바다부 구역장

번호 46



성명	김인실
나이	57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탁아부

번호 47



성명	이순자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에스더전도회장

번호 48



성명	김연옥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49



성명	성부자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경로대학 구역장

번호 50



성명	유영자
나이	58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탁아부 구역장

번호 51



성명	임선영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탁아부 구역장

번호 52



성명	서계실
나이	56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53



성명	이강분
나이	5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54



성명	채귀순
나이	6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55



성명	엄미봉
나이	64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권찰 한나전도회

번호 56



성명	연화숙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할렐루야찬양대 구역장

번호 57



성명	임인순
나이	55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권찰 에스더전도회

번호 58



성명	김옥희
나이	6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청년1부 구역장

번호 59



성명	김정애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60



성명	김봉숙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61



성명	변옥희
나이	50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장년2부

번호 62



성명	김숙희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장년2부 구역장

번호 63



성명	박옥림
나이	52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예배위원

번호 64



성명	양혜원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65



성명	조춘자
나이	56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66



성명	유금례
나이	58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에스더전도회

번호 67



성명	손순자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초등6부

번호 68



성명	양영자
나이	53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69



성명	오천자
나이	51
직분	서리집사
봉사 부서	구역장

번호 70

1993년도 교회 주요 행사 일정

◆ 절기에배

행 사 명	날 짜	주관부서
신년예배	1. 1	예배위원회
부활절예배	4. 11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맥추절감사예배	7. 4	예배위원회
추수감사절예배	11. 21	예배위원회
성탄축하예배	12. 24	예배위원회, 찬양위원회

◆ 주요행사

행 사 명	날 짜	주관부서
안수집사·권사 선거	1. 17	당회, 공동의회
기도원집회 및 부흥회	1. 25 ~ 1. 29	기도원, 기도원활성소위원회
장학금 수여(전반기)	3. 7	도서관학회
피택안수집사 고시	4. 10	교육훈련원, 성경연구원
피택권사 면접	4. 10	당회
안수집사 장립 및 권사 취임식	4. 27	당회
경로대학	4월	교육훈련원
경로잔치	5. 8	교육위원회
전도대파송	8월	전도위원회
장학금 수여(하반기)	9. 12	도서관학회
원로추대 및 장기근속자 포상	12. 26	당회, 사무국
불우이웃 위로잔치	12월	봉사위원회
직분자임명	12월	당회
새가족환영회	박수달 첫주 4부 예배 후	교육위원회, 교구위원회

◆ 전국목회자 세미나

행 사 명	날 짜	주관부서
제3회 제6학기	3. 9 ~ 6. 30	교회성장연구원
제4회 제1학기	9. 1 ~ 11. 30	교회성장연구원

◆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특별행사

행 사 명	날 짜	주관부서
봉사관 헌당	3월	건축위원회
기념교회설립	3월	
체육대회	5. 5	준비위원회, 교구위원회
성경암송·그리기	6월	준비위원회, 교육위원회
미주 성가합창제	6. 23 ~ 7. 5	준비위원회, 찬양위원회
학술세미나	7월	준비위원회, 교육연구소
기념예배	9. 5	준비위원회, 예배위원회
선교보고대회	9월	준비위원회, 선교위원회
바자회	10. 1	
대외 구제 사업	11월	구제위원회, 준비위원회
충현 40년사 편찬	94년 9월	준비위원회, 편찬위소위원회
기도원확장 사업		기도원, 건축위원회
제2교육관 건축		건축위원회
동산조성 공사		동산조성소위원회, 건축위원회

◆ 출 판

행 사 명	날 짜	비 고
주간충현	매주	
충현의 만나	매월	
계간충현	계간	3. 9. 12월 발간
주보	매주	
교회 규정집	2월	
교회요람	3월	
에베소서	12월	신성종 목사 저서

◆ 세례식 및 성찬식

행 사 명	날 짜	주관부서
세례문답 및 교육	세례식 전의 목요일	당회, 교육훈련원
제1차 세례식	1. 8	예배위원회, 성례부
제2차 세례식	4. 2	예배위원회, 성례부
제3차 세례식	6. 25	예배위원회, 성례부
제4차 세례식	11. 12	예배위원회, 성례부
제1차 성찬식	1. 10	예배위원회, 성례부
제2차 성찬식	4. 4	예배위원회, 성례부
제3차 성찬식	6. 27	예배위원회, 성례부
제4차 성찬식	11. 14	예배위원회, 성례부

◆ 수양회

행 사 명	날 짜	주관부서
겨울수양회	1 ~ 2월	교육위원회
여름수양회	7 ~ 8월	교육위원회
찬양대수양회	7 ~ 8월	찬양위원회

◆ 성경연구원

행 사 명		날 짜	비 고
단기수련회	교역자	1. 13 ~ 1. 14	지도자의 자세와 협력사역(박종순 목사)
	장로	1. 13 ~ 1. 14	장로의 교회 정치와 역할(한석지 목사)
	안수집사	1. 13 ~ 1. 14	안수집사의 역할과 자세(신표근 목사)
	권사	1. 13 ~ 1. 14	구역에서의 권사의 역할(윤용규 목사)
	교사	1. 13 ~ 1. 14	교육방침과 교사의 역할(홍창민 목사)
	찬양대원	1. 13 ~ 1. 14	찬양대원의 찬양과 영성(김찬곤 목사)
	교구일꾼	1. 13 ~ 1. 14	93년도 교구의 운영 방향(김성운 목사)
	전도회원	1. 13 ~ 1. 14	전도회 운영과 활동(임성환 목사)
	직원	1. 13 ~ 1. 14	직원의 역할과 자세(이종국 장로)
주간성경공부	제1학기	3. 6 ~ 6. 18	
	제2학기	9. 4 ~ 12. 10	
교사양성부	제38기	3. 6 ~ 6. 15	15주간
	제39기	9. 4 ~ 12. 7	
찬양대원양성부	제8기	3. 6 ~ 6. 14	
	제9기	9. 4 ~ 12. 6	
청지기훈련		4. 8 ~ 6. 17	
성경통신강좌		1. 1 ~ 12. 31	매주일 주보에 게재
특별교육	제27대 피택장로	92년 11월 ~ 93년 4월	
	제8대 피택집사	1. ~ 4.	
	제36대 피택권사	1. ~ 4.	
	서리집사·권찰 후보	11. 4 ~ 11. 12	

◆ 총회 및 회의

행 사 명	날 짜	주관부서	비 고
제1차 공동의회	1. 3	당회서기	결산, 예산, 집사·권사 선거
제2차 공동의회	1. 17	당회서기	집사·권사 선거
정기당회	매 월	당회서기	첫째주 주일 찬양예배 후
위원장협의회	매 월	당회서기	마지막 주일 찬양예배 후
임시당회		당회서기	필요시
제직회	매 월	제직서기	둘째 주일 4부 예배 후
교구총회	12. 19	위원장	
찬양대총회	12. 19	위원장	
남녀전도회총회	12. 19	위원장	
집사회총회	12. 26	회장	
권사회총회	12. 26	회장	
교사총회	12. 26	위원장	
특별제직회	12. 26	제직서기	결산 및 예산 승인

새해를 맞으면서



나의 인생, 그리고 1993

심정섭
(대학부 회원)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기대도 되고 저에게 주어지는 일들과 계획한 일들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움도 생깁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년이라는 시간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독립된 시간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한 부분이 될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인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의 성장과 자신이 가지 꿈의 실현을 위해 일 년이라는 시간은 귀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인생의 발달 단계마다 주어지는 과제들도 그 때마다 잘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1993년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한 해동안 제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새

해를 맞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 외에 다른일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방위로 군복무를 하게 되어서 전공공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만 어학 공부나 컴퓨터에 관한 공부나 교양서적들을 읽는 것 등은 계속할 것입니다. 또 대학부에서 조장을 하게되어, 받는대만 익숙해 있다가 남을 섬기고 주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올해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지 하고 굳게 다짐은 하지만 한 해를 지나다 보면 그런 다짐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사는대 급급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해에는 그런 결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무엇을 꼭 하겠다는 거창한 계획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히 행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씩 준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아 침과 저녁이 있으니 날마다 새로운 만남과 교제와 창조가 있다. 52번의 작은 결심과 12번의 좀더 큰 성공과 실패도 있었다.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93년도라는 큰 선물을 주신 것이다. 거기에 지난 해의 아쉬움과 좌절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기쁨과 기대로 벅찬 내 가슴은 방망이질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전에 있었던 대통령당선자의 이야기에서 "당선의 기쁨에 앞서 어깨가 무겁다"라고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본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 삼아주고 원하심으로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꼭 조건을 치신다. 내 계명도 지켜야 하고 내 안에 거해야 하고.....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다지 기도하지 못한 위인이지만, 그

조그마한 일이라도 맡기시면 충성해야지

조 증 선
(집사, 시온찬양대 대원)



러나 외형상으로 우리 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던가? 청와대에서 찬송가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응답되었으니 이제는 입으로 하는 그런 기도는 끝난 것인가? 우리의 어깨는 무겁고 무릎은 더욱 단단해져야 할 시기인 것 같다.

'이제는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삶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올해에는 내 가정에서,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찬양대에서, 교구에서 바깥(?) 세상에서 소금 맛을 잃지 말아야지.'

감감하고 어두울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향해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시고 일꾼을 찾으실때 모래알만큼 작은 일이라도 맡기시면 충성해야지' 하고 굳게 다짐해 본다.



결산과 예산

신영희

(집사, 초등4부교사)



"너희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알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눅 14:28)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또 한번 느끼면서 92년도를 결산한다.

"열매없는 무화가 나무를 보시고 과원지기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어나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눅 13:6-9)

이 말씀이 92년의 결산임을 부인할 수 없다. 올해 받은 은혜와 축복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이 축복과 성숙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오는 인간관계의 도전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하는 뜻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내면성숙과 내면세계의 질서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사랑이었고.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이 고통은 곧 사랑이었고 축복의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새해 예산을 짜는데 많은 비용을 충당해 주었다.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속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교제와 전도 속에서 인간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균형잡히고 조화있는 삶을 펼쳐 보리라하고 93년도를 설계해 본다.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광호

(집사, 할렐루야찬양대원)

"○○○후보, 오십만 삼천.....죄송합니다. 오만 삼천 팔십표," 계속 반복되는 아나운서의 대선 결과발표 실수에도 웃음보다는 오히려 '누가 승리의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인가' 조이는 마음으로 12월을 보내다보니 '아기예수 탄생은 슬며시 뒷전으로 밀린 것'같아 주님 앞에 크게 부끄러울 뿐이다.

매 연말이 다가오면 1년의 결산보고서가 연초에 주님께 약속드렸던 것에 비하면 너무도 작고 부족함에 스스로 자책하고 회개하며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지만 '기억의 건망증'은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 오곤 하니.....92년도는 어느 한 해보다 개인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한 해였음을 고백한다.

많은 일들 중에서 특히 서운했던 것은 올해부터 일어배부리가 폐쇄되어 지난 2년간 나름대로 일본선교의 사명을 갖고 봉사해 온 베들레헤찬양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

접쳐 더한 중압감으로 있었다

진정한 낮아짐의 출발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사랑의 출발이 아니고서는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배부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확신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소망과 계획을 다시 세우고 이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인 주님을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거창한 계획보다는 "인생은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신 김선우 목사님 말씀대로 가정적으로는 남편과 자녀들과 나 자신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구역장, 다시 봉사하는 할렐루야성가대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통해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과 경배'로 영원한 생명에 참 기쁨으로 참여하여 천국인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나의 조그만 바람이다.

"그 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92년 묵은 해가 가고 93년 새해가 찾아왔다. 이러한 규칙적인 해의 바뀔은 우리의 일생에서 이미 수십 번 이상 반복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에도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옛날에 똑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었던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타성에 젖게하고 때때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반복에 대한 경험이 쌓여지면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안목은 점점 무디어져가고 식상(食傷)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우리의 감동이 식어지고 무감

각해지며 둔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타락해져 간다는 증거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변화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변화만을 기다린다. 남편이 변화되어 예수 믿기를 바라라고, 자녀가 먼저

자신에게 순종하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저 성도는 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할까? 하면서 교회나 주위의 성도들

이 변화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변화되기를, 또한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야곱이 먼저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에 서의 마음 속에 자리

❖ 칼럼/역삼동에서 ❖

새로운 피조물

홍창민

(목사 제21교구·새가족부·교육위원장)



잡고 있었던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신이 먼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질 때 모든 것이 새

롭게 되어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사도 바울의 감격적인 외침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전에는 절망과 탄식과 좌절과 지루함의 대상이었던 그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새로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그렇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반복되는 모든 일상의 생활이 나에게 새로운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의 생활을 매일 새로운 감동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일 것이다.

신년 부흥회 은혜중에 마쳐

4-8일, 기도원에서 매일 성황중에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위해 열린 신년 부흥회가 은혜중에 마쳐졌다. 연 5일간 열린 이번 부흥회로 신년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확정하고자 하는 교우들로 기도원

본당과 지하 예배실을 매 시간마다 가득 채운 가운데 열렸다.

새벽기도회와 낮 성경공부, 저녁 부흥회로 진행된 금번 부흥회는 저녁에는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중 목사가 번갈아

가며 인도하여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자세와 결심을 갖는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교회는 부흥회 참석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오전과 저녁에 기도원행 버스를 운행하기도 하여 성도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했다.



제20교구 새가족 환영회

제 20교구(교구장 김영길 장로)는 새가족 환영회 및 가족친교모임을 오늘(1월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선교관 지하 1층 만나홀에서 갖는다.

제20교구에 해당되는 모든 교우들은 꼭 참석하여서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 제20교구는 과천, 안양, 광명, 군포, 의왕, 수원, 안산시 전지역을 포함한다.

교역자 및 선교사 사임

올해들어 중등3부 지도와 제2교구 담당 교역자로 일하던 김태준 목사가 사임하고, 장년 1부 지도를 담당하던 김정우 협동목사와 손영준 협동목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했다. 또한 평신도선교사로 사역하던 박행렬, 장부용 선교사가 사역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평신도 선교사직을 사임했다.

93 선교연구원생 모집

매주일 오후 3시, 1년과정으로

충현세계선교연구원(원장:신성중 목사)에서 1993년도 선교연구원 제2기생을 모집하고 있다. 선교연구원은 매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베다니홀에서 강의를 갖는다. 전호진 박사, 전재욱 박사, 노봉권 박사 등 한국교회학계의 저명한 교수들에 강의를 맡고 있다.

이 선교연구원은 1년 과정으로 이 과정을 마치면 선교에 대한 기본 개념과 신학적 관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 지원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에 만18세 이상의 세계 교인으로 선교사(차비량 선교사) 희망자 및 이민·여행·교육·취업 등으로 해외체류 및 거주자, 선교사를 위한 기도후원 및 재정후원자와 타교회 교인으로 당회장의 추천서를 받은 자이다.

접수는 1월 31일까지이며 사무국 행정과에서 접수한다. 접수한 사람은 2월6일 오후 3시에 세계선교위원회(선교관406호)에서 면접에 있다.

1993년 신년예배

1993년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신년특별새벽예배와 신년예배로 시작을 했다. 김창인 원

로목사는 신년새벽예배에서 다니엘 1:8-21의 본문으로 '다니엘의 결심'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한해가 되자고 강조했다.

오전 9.11시의 신년예배에서 당회장 신성중 목사는 사무엘상 26:21-25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큰 일을 행하겠



각 교구 담당 교역자 확정

총 23개 교구에 남녀교역자 배치

교회는 그동안 신임 교역자 및 일부 변동이 있었던 각 교구 지도목사 및 부지도전도사들을 조정하여 각 교구에서 일할 교역자들을 확정 발표했다.

교구	지도목사	부지도
1	이 조 용	정 연 희
2	장 봉 생	배 옥 인
3	김 해 규	최 명 자
4	이 종 대	정 복 인
5	신 로 근	장 혜 순
6	김 성 윤	송 향 자
7	김 광 국	홍 정 순
8	김 수 상	장 영 자
9	조 동 원	오 인 숙
10	김 용 기	임 대 주
11	조 윤 재	김 정 순
12	윤 용 규	손 미 희
13	장 광 옥	현 정 남
14	최 인 근	최 지 혜
15	한 용 관	최 순 복
16	장 경 철	계 선 화
17	김 회 수	신 동 자
18	박 정 규	구 명 신
19	성 봉 환	윤 인 숙
20	김 찬 곤	김 옥 훈
21	홍 창 면	오 장 숙
22	김 양 훈	김 정 숙
23	임 성 환	김 정 자

고'라는 설교에서 새해에 새롭고 큰 소망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자고 설교했다. 예배후에 교역자와 장로들과 전교인이 함께 새해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8)

일본어예배 시간에 일본어로 찬양하던

베들레헴찬양대 해산

우리 교회 외국어 찬양대의 하나인 베들레헴찬양대(대장 송관창 장로, 부대장 김진국 집사, 지휘 정경자 권사, 판주 김지향 선생)가 지난해 12월 27일 일본어예배에서의 송년찬양을 마지막으로 사랑과 아픔 속에 해산하였다.

동 찬양대는 지난 1990년 8월에 창설되어 그동안 매주 오전 9시 국제회의실에서 드려진 일본어예배에 봉사하는 유일한 일본어찬양대로서 많은 일본인 성도로부터 경이와 감탄의 찬사를 들어왔었다. 베들레헴찬양대 대원들은 1부에서 4부까지의 각 찬양대별로 각각 나눠서 제임명을 뽐냈다.

현관 대원들은 베들

레헴찬양대 해산을 아쉬워하며 기념으로 서로 정성을 모아 풍사관 전축한금을 하나씩께 바치며 어디가서든지 신실한 찬양대원이 될 것을 다짐하였다.

이번대회의 입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경고사대회
 - 초등부2등:김보미(초등5부)
 - 중등부3등:조충현(중등3부)
2. 성가대회
 - 독창 유년부 2등:백지연(초등1부) 장려:김구슬(초등1부)
 - 중등부 1등:양현구(중등2부) 2등:김경후(중등1부)
 - 중창 3등:이상진외 3명
 - 합창 유년부 1등:초등3부 초등부 1등:초등5부 중고등부 1등:중등2부



◀1등 입상한 초등3부 찬양대

"QT와 나눔"

청년1부 특강, 윤삼중 강도사

청년1부(부장 박승준 장로)는 1월 10일(오늘) 오전 11시에 교육관 514호 청년1부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실시한다. 강의 제목은 "QT와 나눔", 강사는 청년1부 지도인 윤삼중 강도사이다. 청년1부는 만 23세 이하의 직장 청년들의 모임이다.

청년1부에서는 해당되는 청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계속되는 권사기도회

권사회(회장 김상순 권사)는 지난 1991년 12월부터 시작한 권사들이 24시간 연속해서 기도하는 기도회를 금년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482명의 시무권사를 4개 지회로 편성한 지회에서 주일 아침 7시에서 다음주 일 아침 7시까지 일주일씩 기도하고 있는데 두명이 일개조가 되어 2시간씩, 다음 사람이 교대할 때까지 기도한다.



▼해산된 베들레헴찬양대